

제 2 호

대림 두째주일

1972. 12. 10

순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범 석 규
주 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감 론】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는마음

오 기 순 신부



주여! 어서 오소서! 내 영혼이
주님을 애타게 기다리옵니다.

주님은 한발 한발 다가오셔도 내
눈은 속세에 잡다한 것들을 보기에
어두워졌고 내 영혼은 오시는 주님
을 뵈을 수도 없는 불행하고 가련한
소경입니다. 어서 오셔서 내 영혼의

눈을 활짝 열으시어, 오시는 주님을 똑똑히 뵈옵는 기쁨
을 내 가슴에 가득히 채워 주시요.

내 육신은 속세의 길을 치달다가 기진했고 내 영혼은
오시는 주님을 맞으려 달려 갈 수도 없는 절름발이입니
다. 너무도 처량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서 오시어 즐겁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러 달려 갈 수 있게 고쳐주시요.
그 때에 내 영혼은 기뻐 용약하며 주님을 기꺼이 맞이하
리라.

주님이 오신대도 내 영혼은 속세에 물들어 나환자 보
다도 더 흉하고 처참하기에 오시는 주님을 감히 맞이할
수가 없고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어서 오시어 내 영혼의 나환자보다도 더 흉하고. 무서
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요. 가슴에 복바치는 깨끗해
진 기쁨을 안고 오시는 주님만을 내 가슴 속에 맞이하리
다.

주님은 사랑을 외치며 오시는데도 내 육신의 귀는 속
세의 잡음을 듣기에 어두워졌고, 내 영혼은 주님이 외치
시는 사랑의 말씀도 구원의 말씀도 들을 수가 없는 귀머
저리가 됐습니다. 너무도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입니
다. 주여! 어서 오시어 내 귀를 활짝 열어, 오시며 외
치시는 사랑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요. 그래야 내
영혼은 주님의 사랑을 이 가슴에 뜨겁게 느끼며 영원히
영원히 살아 가리라.

주님은 오시는데도 내 육신은 속세를 헤매며 살아 오
다 지쳐서 죽게 됐고, 내 영혼은 죄악으로 비참하게 죽었
기에 주님의 오심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너무도 처참하고 처량한 죽음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
어 내 영혼을 살려주시요. 그래야 내 영혼은 소생의 기
쁨을 안고 주님만을 내 마음 속에 모시고 영원히 살 수
가 있습니다. 끝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
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뜨겁기
만한 사랑의 불은 모든 사람들의 가슴마다 끝없이 한없이
타오르리라. (복자 성당 주임신부)

* 이 주일의 미사 *

□임당송 시온 백성아, 주께서 만민을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당신의 우렁찬 목소리를 들려주실 때 너희 마음
은 기쁨에 넘치리라.

□제1독서 주의 길을 닦아라(이사이사서 40장)

□찬가송 주 하느님 말씀을 내 듣고 싶사오니, 당신
의 백성과 성도들에게 정녕 평화를 말씀하시나이다. 당
신을 두려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당
신의 영광이 우리 땅에 계시게 되리라.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보이소서.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소서.

□제2독서(베드로 후서 3:8-14, 성서 p.541)

□알렐루야 알렐루야. 너희는 주의 길을 닦고 그의
길을 고르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
라. 알렐루야.

□복음(마르코 1:1-8, 성서 p.75)

□신자들의 기도

1.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평화의 일치를 웨치는 용기를 더욱
복돋아 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 우리 교황 바오로와 모든 성직자들을 위하여 간구
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세례자 요한의 용덕을 더욱 심
어주소서. ◎

3.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들이
합당한 준비와 즐거운 마음으로 판공성사에 임할 수 있
도록 도와주소서. ◎

4. 선의의 모든 사람과 특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그들이 국민들의 자유와 평화를 이
룩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

5. 가장 불우한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여,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어
려운 처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도와주게 하소서. ◎

□대림절 감사송 1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천
주께로 부터 오는 기쁨을 보라.

* 이주간의 성경 *

11(월)독서(야고보 3:13-18, 성서 p524)

복음(루가 5:17-26, 성서 p136)

12(화)독서(야고보 4:1-10, 성서 p525)

복음(마태오 18:12-14, 성서 p43)

13(수)독서(야고보 4:11-12, 성서 p525)

복음(마태오 11:28-30, 성서 p25)

14(목)독서(야고보 4:13-17, 성서 p526)

복음(마태오 11:11-15, 성서 p24)

15(금)독서(야고보 5:1-6, 성서 p526)

복음(마태오 11:16-19, 성서 p24)

16(토)독서(야고보 5:7-11, 성서 p526)

복음(마태오 17:10-13, 성서 p40)

☐ 교리교실 ☐

하늘 나라(천국)

박진량 신부

우리는 요르즘 천국(하느님의 나라)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주저하는 경향 혹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으려는 경향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천국에 대하여 이제까지 가졌었던 생각이 오늘날의 시대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자 요한은 구세주 대림절 동안에 줄곧 「회개하시오,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읍니다」(마태오 3장 2절)라고 외치고 있으니, 역시 하늘나라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천국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종래에 알고있는 지상 낙원, 혹은 인간의 모든 욕구가 만족되는 곳, 하느님이 앉아 계시는 옥좌와 그 집(천당)으로 생각하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거기(천국)에는 성인이 되어야 즉, 죽어서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고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고 고행에 대한 끝없는 갈움을 누리는 지복의 경지라고 생각했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교박식에는 좀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 본다.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면서부터 이 지상에 시작됐다. 그래서 그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과 업적에서 드러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에게서 드러났다. (가톨릭 교리서 p.48 참조)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 상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천국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그 증명이 부활로 나타났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와 요한이 의친 천국이 무엇일지 의하는지 어렵듯이 짐작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직접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려던 하느님의 나라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통치권, 하느님의 지배권, 하느님의 뜻을 구현시키사 태이다.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상생활을 하시는 동안 내내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느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었고, 결정적으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심으로써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통치권)을 완전히 자기안에 구현 시키셨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에게서 천국은 완전히 드러났다. 이제 세례받은 우리가 찾아야 할 천국도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 즉, 우리의 전 존재안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그의 통치권을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도 몇번씩 이렇게 기도 드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양지쪽

작소리 - 참소리

어렸을 때 잘못을 저지르고 어른들에게 꾸지람을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처음으로 꾸지람을 듣고 타이름을 들었을때에 받은 충격은 참으로 크다. 하지만, 같은 잘못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같은 충고를 계속해서 받을 적에 느끼는 그것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처음으로 나쁜 성적표를 받았을 때에는 누구나 그것을 사실대로 보여 드리기를 꺼려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고 나중에는 좋은 성적을 보여드리겠다고 혼자서는 감당에 제법 진실하게 다짐을 한다. 허나, 세상 일들이 어디 그리도 꼭 제마음대로만 되는가? 그러하다면 지능적이고도 장기적인 범죄계획을 세워 어른들을 속이기도 작정을 하게 된다. 처음에는 그리도 뼈아픈 충고라도 생각했던 어른들의 말씀이 나중에는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작소리」

동아출판사가 펴낸 국어사전에 이렇게 풀이 되어 있다. —듣기 싫게 늘어 놓는 잔말. 꾸중으로 하는 여러 말. 잔말. —사람들을 왜 잘되라고 타이르는 말들을 잔소리로 생각하는가? “듣기 싫게 늘어 놓는 잔말”의 뜻이 어찌 다? “꾸중으로 하는 여러 말”로 탈바꿈을 하고 말았는가?

흔히들 하는 말로 어른들의 충고나 선생님들의 타이름, 목사님이나 신부님의 말씀을 잔소리라고 한다. 심지어는 자기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는 표현을 「설교」한다고 한다. 강단의 성직자나 교단의 석학(碩學)들이 하는 금싸라기 같은 말씀보다는 코메디안의 한 마디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유행이 되고, 또 귀담아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례와 요한의 바른 말들이 헤로데의 귀에는 정말로 듣기 싫은 잔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그래서 헤로데는 요한을 죽여 버렸지 않은가? 올바른 이성과 양심의 소리를 듣기 싫어할 때, 사람들은 요한을 죽이는 죄악마저도 겁내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를 듣는다.

-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시오.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입니다. (마르코 1장 4절)

작소리?

이전 「참소리」이다.

지금은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이다.
무슨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각)

[illegible]

* 대화의 광장 *

● 잔 디 발 ●

〈전선에서 온 편지〉



우 리 여 기 에 있 습 니 다

국가 비상계엄이 선포된 현시국의
성업에 하느님의 축복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7.4 공동성명 이후 남·북적 대화는 빈번해 지는 듯합니다.

그러나 성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로 전략이 바뀌어졌고, 협상·반란·공격
이라는 붉은 마수의 술법을 감안해 볼 때 자유대한을 적
화통일하려는 데 혈안이 된 북괴는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서라도 언제 무력행사를 할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과거
6·25를 통해서 뼈저리게 느낀 바 사실이 아닙니까?

이러한 차제에 해병 제3510부대는 서부전선 최전방에
서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서 그 어느 때보
다도 철통같이 우리의 국방을 지켜야 할 사명을 자각하

고 육안으로 적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고지에서, 혹은 초
소나 해상에서, 또는 외로운 고도에서 불철주야 24시간
근무의 고생을 감수하는 해병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대한의 자식이요, 여러분의 자식들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후방에 계신 여러분들의 희생적 봉사
와 따뜻한 위문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금년 크리스마스
를 맞이하여 일선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바
랍니다. 뜻을 정하셔서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
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해병 제3510부대 (우편번호 715-53)

군종과장 해군 대위 서용복 신부 드림

※단체로 「애기봉」이나 「제적봉」(북한이 환히 보이는
곳)을 방문하시려면 사전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국군 장병 위문하여 장병들과 군종 신부님들의 사기를 높여 드립니다

— 전주 지구 교육분과 위문회 전의 사항—

1. 방법
 - ① 편지 쓰기
 - ② 위문품 수집
 - ㄱ. 뜨개질 한 털 양말, 털 장갑
 - ㄴ. 솜이불, 담요, 내의, 방석
 - ㄷ. 위문품 대신 현금도 접수합니다.
2. 접수기간 1972. 12. 3-12. 18(각 본당 사무실에서 접수)
3. 전 달 1972. 12. 20일경

= 신부님이 안 제시는 시골 공소에 주보를 보냅니다 =

신부님 안제시는 공소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소가 될 주보를 받아 볼 수 있도록 형제애를 발휘합니다.

※ 독자들께서 우편요금만 (1구좌에 1년 500원) 부담해 주시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주보를 보내 드립니다.

가톨릭 센터 프로그램 안내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③3498)

- 11(월) 지성인 교리 교실(제2기)-오후 8시
- 12(화) 외국 문화 교실(영어)-오후 8시
- 14(목) 여성 교실(크리스마스 특집)-오후 2시

- 14(목) 외국 문화 교실(독일어)-오후 8시
- 15(금) 지성인 교리 교실(제1기)-오후 8시
- ※음악과 차가 있는 휴게실 개장(12월 11일부터)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 화강 ☆

미용실 안내

〈교우들에게 특별 봉사〉

主 이 데레사(현주)

중앙성당 앞 결혼미용실 전화 ⑥ 6 7 9 4

가톨릭시보 전북지사

지사장 김 치 복(토마스)
金 熾 福

※ 교도소 재소자들과 일선 장병을 위한 위문품과
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접수처-가톨릭 센터)

(중암)

(전화 ②2651)
②3874주임 신부 안복진
사도 회장 김중순

- 12월 11일은 마지막 피정날입니다. 아직 참석 못하신 분의 참석 바랍니다.
- 미사시간 변경 (오전 6시→6시반, 오후 7시반→오후 7시)
- 꾸리아 월례회 (12월10일 오후 2시, 강당)
- 신용조합원 통장 대조(12월 15일까지)
결산을 마치고 착오를 대조코저 하오니 통장 제출
하시기 바람(기일 넘으면 그대로 처리)
- 혼배 성가미사 (12월 12일 오전 10시)
- 지난 주일 봉헌금 24,645원 감사합니다.

□ 반회장 임명 □

양의정, 태평동 2가 2반회장에 임명함
12월 5일 사도회 총제 안복진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이태영

- 신용 조합 월례회(12월 10일 공식미사후)
- 친목 배구 시합(12월 10일 공식 미사후)
중앙 성당 학생회 : 노송성당 학생회
- 부녀회 월례회(12월 17일 공식미사후)
- 가을 판공 성사 실시
20(수)→남노송동 22(금)→중노송동 2가
21(목)→중노송동 1가 23(토)→인후, 우아동,
신교리

※ 시간...오후 2-6시, 7:30-9:30

※ 성사표를 오전에 발급하오니 판공비 (50원이상)와
정양회비(1인당 5원이상)를 준비하시기 바람.

※ 72년 교무금 완납, 73년 교무금 신일 요망.

※ 72년분 본당 신축 기금도 힘대로 납부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송영기

- 가을 판공 일자 일부 변경
내동리 공소 14(목)→13(수)일로
• 동산촌 공소 13(수)→14(목)일로
※ 준비...판공비 (1인당 50원 이상)
정양회비 (1인당 10원 이상)
- 학생 교리 실시
12월 9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4~5시반
- 학생회지 "씨앗" 2호 원고 모집
※ 시, 단편소설, 독후감등
※ 원고 제출처...학생회장에게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순
사도 회장 조성호

- 레지오 마리에 연총 친목회(12월 10일 저녁미사후)
- 애령회(12월 10일 공식 미사후)
- 구역장 회의(연총 친목회 때문에 연기)
- 꼬미시움(12월 17일 오후 1시반)
- 가을 판공성사 실시(12월 20~22일)
※ 위 3일간 구역 제한 없이 실시함.
※ 교무금 납부 요망.
※ 판공비(거년과 같이 30원 이상) 준비.
- 영세식(12월 23일 저녁미사후)
- 지난 주일 성미... 2말 5되
누 제...62말 5되
지난 주일 봉헌금 10,761원 }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육낙철

- 성가 신용 조합 월례회(12월 17일 오전 11시)
-일인은 만인을 위하여, 만인은 일인을 위하여-
- 상록 쉼 회합(12월 9일 오후 6시)
승암 쉼 회합(12월10일 오후 5시)
학생회 임원 간담회(12월17일 오후 2시)
- 주난 주일 봉헌금 5,681원, 감사합니다.
□ 사도회 월례회 결의사항 □ (21명 참석)
※ 73년은 본당의 자치. 자활. 자결 운영의 해
ㄱ. 교무금은 전년도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책정하되
카아드식 자진 신일 제도를 실시.
ㄴ. 사도회 임원들의 가정 방문(재경부)
ㄷ. 군중 신부 후원 결의(부녀부)
ㄹ. 본당 산하 18개 반에 지도자 분담 실시.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균
사도 회장 송영선

- 자모회 월례회 (12월10일 공식 미사후)
- 애령회를 위한 특별 헌금을 부탁 드립니다.
- 판공성사를 금주내에 완결을 지읍시다.
(성사 시간...평일 미사 전후)
- 신용조합 월례회 (12월14일 밤 7시반)
- 지난 주일 봉헌금 26,551원, 감사합니다.
□ 사도회 12월 사업계획 □
선교부(판공 성사 권장, L.M. 연총 친목회)
교육부(주일학교, 학생교리 출석 강화, 주일학교 교리
시험)
사회부(이웃돕기 가두 모금-J.O.C와 협조)
부녀부(신학생 후원 성미 모으기, 위문품 수집)
재경부(교무금 신일 완료, 주일 헌금 배가 운동)

		중	앙	노	송	동	덕	진	복	자	서	학	동	전	동
미 사 시 간	주	오 전		6시반, 10시		6시반, 10시		10시		10시		10시		6시, 10시, 11시	
	일	오 후		7시 (토요특전5시)		7시 (토요특전5시)		4시, 7시 (토요 특전 7시)		7시		7시		7시	
	평	오 전		월.수(6시반) 금(10시)		금(10)		월.수.금(6시반)				월. 목(7시)		월.화.목.금(6시)	
	간	오 후		화.목(6시)		화.수.목(6시반)		화.목(7시)		매일 (7시)		화.수.금.토(7시)		수.토.(7시)	